

이란의 최근 주요 경제동향 및 향후 전망

(2015. 1. 29)

이란주재원

□ 이란의 핵협상 시한 연장

- 이란 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못하고 추가 경제 제제완화 조치도 없이 2015. 7. 1까지 시한만 연장됨에 따라, 기존 공동 이행계획(Joint Plan of Action)상 유예조치가 지속
 - 4개월 내('15. 3월내) 정치적 합의(Political agreement)를 도출한 후,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15. 6월말까지 최종 포괄적 합의 도출 추진
- 공화당 주도 의회 견제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내 미국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협상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
 -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성과를 위해 적극적이고, 유가하락으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이란 정부도 적극 협상에 나설 가능성 상존
- 핵협상 시한 연장 발표 후, 이란 경제는 주가 하락과 환율상승 등 다소 동요를 보이다 일시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으나, 서방의 이란 제재, 유가하락, 높은 실업률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

□ 이란의 외환시장

- 핵협상 시한 연장 발표 후 다소 동요를 보였던 외환시장은 최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조치 등으로 미달러를 포함한 주요국 통화의 환율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

핵협상(11. 24) 전후 시장환율 동향

구 분	대미화 환율
'14. 11. 22 (핵협상 직전)	32,500
'14. 11. 24 (핵협상 당일)	32,650
'14. 11. 30 (핵협상 직후)	34,250
'14. 12. 31 (전년도 말)	35,300
'15. 1. 28 (최 근)	34,700

* 이란정부(중앙은행)가 발표하는 공식환율과 실제 은행에서 거래되는 시장환율이 있음

- 2015년중 이란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란정부는 중앙은행을 동원하여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평가절하를 취할 것으로 보임

□ 이란의 주식시장

- 핵협상 시한 연장 발표 직후, 테헤란 증권시장의 주가지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였으나,
- 급격한 원유가격 하락, 핵협상의 연장, 이란혁명수비대의 부패 등의 영향 등으로 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년초(이슬람력 기준, 2014. 3. 21)에 비하여 30%이상 하락하였음

핵협상(11. 24) 전후 주가지수 동향

구 분	주가지수(TSE)
'14. 11. 22 (핵협상 직전)	75,042
'14. 11. 24 (핵협상 당일)	75,949
'14. 11. 30 (핵협상 직후)	72,189
'14. 12. 31 (전년도 말)	68,973
'15. 1. 28 (최 근)	65,256

- 2015년도 주가지수도 서방과의 핵협상타결 등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란의 현 경제상황, 원유가격의 하락, 서방국가의 경제재제,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란의 국가재정 상황

- 원유에 의존하는 이란 경제여건하에서 중장기적으로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금년중(이슬람력) 88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됨
-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은 2015년도 이란 정부예산을 '14. 12. 7자로 국회에 제출
 - 내년도 예산규모는 8,370조 리알(시장환율 환산시 약 U\$2,750억)로 '14년도 예산보다 4.3% 증가
(예산안에 반영된 유가는 1배럴당 U\$72('14년 배럴당 U\$100대비 28% 하락), 미달러 대비 환율은 25,800리알 기준)
 -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재정적자 만회를 위하여 △ 비석유제품(non-oil)의 수익을 증대하고, △ 세수율을 최고 23%까지 높이며, △ 국가개발기금(NDF : National Development Fund) 적립금 **활용** 등을 새 예산안의 중점 정책으로 언급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 이란 경제는 침체되고, 심각한 예산 부족에 직면할 것이며, 유가가 배럴당 U\$131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예산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 세수확대, 환율절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끝.